











활용하기 쉬운 FTA-PASS

원산지관리가 편리한 FTA-PASS

- RCEP 원산지국가 결정하기 -

구본현 | 한국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과장/원산지관리사

김소연 | 하국워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주인/원산지관리사

원산지관리가 편리한 FTA-PASS

- RCEP 원산지국가 결정하기 -



구본현 한국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과장/원산지관리사



김소연 한국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주임/원산지관리사



FTA-PASS는 2010년 관세청 주관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한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수출/제조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업무 지원을 위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사용자는 FTA-PASS로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류 발급과 유통, 원산지 입증자료 보관, 사후검증대비 등이 가능하다.

FTA-PASS는 사용자가 원산지정보만 입력하면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다.

'22년 발효한 다자간 FTA인 RCEP은 전세계 인구와 교역량을 30%를 아우르는 거대경제권이다. 다자간 국가가 가입한 만큼 RCEP 협정문을 꼼꼼히 살펴봐야 실익을 누릴 수 있는데, 본편 에서는 RCEP의 민감품목은 어떻게 조회하는지 실제 화면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다.

1. RCEP이란

RCEP은 우리나라 최초의 다자간 FTA로 15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체결 FTA 중에서는 가장 큰 경제영토를 가진다.

RCEP 회원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총 15개국이며, 2022년 1월 1일 중국, 일본 등 10개국이 발효하였고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에 발효하였다. 이에 따라,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등 신남방정책이 가속되었으며, 일본과의 첫 FTA라는 의의가 있다.

특히, RCEP은 타협정과 다르게 관세 차별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세율이 유리한 국가를 통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RCEP 회원국 내에서도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RCEP 체결국가





예를 들어 C국이 Z물품을 A국에서 수입 시 10%, B국에서 수입 시 2%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A국산 물품이 B국을 단순 경유하여 C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8%의 관세절감 유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원산지국가 결정하기-1

RCEP은 회원국 내에서 원산지 국가를 결정해야 하며, 이는 세율이 유리한 국가를 통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동일한 품목이라도 수출국가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A국가 기업이 B국가로 직접 수출하는 것보다, 먼저 C국가로 보낸 다음 B국가로 우회수출하면 관세혜택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FTA-PASS에서 원산지국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하겠다.

1.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해 민감품목을 먼저 분류한다.

민감품목은 수입당사국이 협정 부속서1 부록에 규정한 품목이며, 우리나라 및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만 운영중이다.





[그림 2] 민감품목 조회를 위한 RCEP 사전설정 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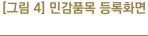
HS코드 메뉴의 ①RCEP 사전설정 탭에서 ②미등록 민감물품을 체크하여 검색하면 물품정보에 등록된 완제품(또는 중간재) 중 민감품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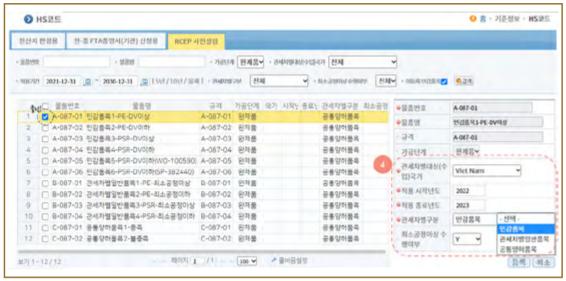
2. 가능성 있는 물품의 세번을 RCEP 민감품목 조회 메뉴에서 ③검색하여 관련 세번을 검색한다.

고객사가 수입할 때 사용하는 세번을 확인하여 민감품목으로 ④분류한 다음 원산지판정을 수행하여 원산지국가를 확인한다.

[그림 3] RCEP 민감품목 조회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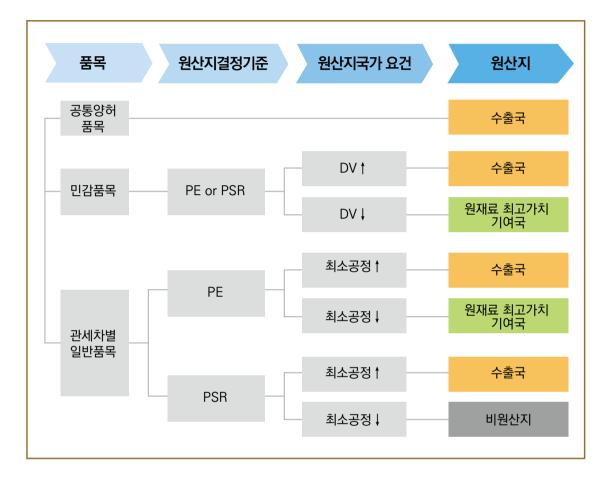


3. 원산지국가 결정하기-2

3. RCEP 민감품목 조회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일괄판정 메뉴에서 원산지판정 수행하여 원산지국가를 바로 확인한다.

RCEP 사전설정 탭에서 관세차별구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전부 공통양허품목으로 자동분류되며 원산지판정 수행 후 원산지국가가 결정된다.





[그림 5] 관세청 RCEP 이행지침 중 관세차별 적용결과표

4. 마무리하며

FTA-PASS는 중소·중견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무료 프로그램이며, 원격지원서비스, 전화지원 서비스, 현장방문 서비스, HS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는 매달 FTA 및 시스템 기능 이해를 위한 내용을 소식지로 제작하여 회원사에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FTA-PASS 회원으로 가입하면 등록한 메일을 통해 소식지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FTA-PASS 소식지는 한국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 FTA-PASS 소식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덧붙여 FTA-PASS 활용기업을 위해 품목분류(HS)자문, 현장방문, 원격지원, 전화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에서 FTA-PASS를 사용하다가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하단의 FTA-PAS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HS자문 서비스

FTA-PASS 가입기업 대상으로 HS 자문 관세사가 품목분류를 제공하고 비용은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

* 지원대상: FTA-PASS 활용기업 중소기업·중견기업

* 신청방법: FTA-PASS 로그인 > [HS정보조회 >

HS 자문] 메뉴에서 신청

* 신청횟수: 기업별 연간 5회 무료 지원

현장방문 서비스



FTA-PASS 가입기업 대상으로 사후관리팀이 사용자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지원해 드리는 대면 서비스

* 지원대상: FTA-PASS 활용기업

* 신청방법:FTA-PASS 로그인 〉[기업지원 〉

현장지원] 메뉴에서 신청

* 신청횟수 : 제한 없음



원격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4가지 서비스

FTA-PASS에서

전화지원 서비스



FTA-PASS 가입기업 대상으로 사후관리팀이 사용자의 모니터를 공유하여 지원해 드리는 비대면 서비스

* 지원대상: FTA-PASS 활용기업 * 신청방법: FTA-PASS 로그인 >

우측 하단 원격지원 아이콘 클릭 및 실행

* 신청횟수: 제한 없음

FTA-PASS 가입기업 대상으로 사후관리팀이 사용자의 애로사항을 유선으로 해결해 드리는 비대면 서비스

> * 지원대상: FTA-PASS 활용기업 * 신청방법: 1544-0645 전화

* 신청횟수: 제한 없음

FTA-PASS란?

FTA-PASS는 중견·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 하기위해 관세청 주관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보급하는 원산지관리 시스템이다.



FTA-PASS 주요기능

FTA-PASS는 아래와 같이 회원가입 후 사전 교육을 받아 FTA-PASS에 대한 이론 학습 및 실습을 마친 후 활용하는 게 이상적이다.

